



이원진 한국어도비 신임 대표이사  
 “고객위한 가치 창조에 힘쓰는 것”

◎ 한국어도비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셨는데 먼저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어도비시스템즈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여 왔습니다. 한국어도비의 대표로서 기본적인 경영 방침 역시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라는 비전 아래 고객에게 항상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어도비의 솔루션이 인간의 아이디어와 정보를 원하는 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조직 내에서도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이원진 한국어도비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해까지 한국매크로미디어 지사장을 지내다 매크로미디어가 어도비에 인수 합병되면서 새롭게 어도비코리아의 리더가 되었다. 매크로미디어 지사장으로 있을 당시 ‘뛰어난 기술력’과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중요시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도비코리아의 행로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원진 어도비코리아 신임대표이사를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 2006년 경영 목표를 비롯한 중장기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국어도비는 2006년을 매크로미디어와의 합병 이후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원년으로 삼고,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최강자로서 기존 시장에서의 선두 자리를 고수함과 동시에 사람 및 기업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혁신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도비와 매크로미디어의 합병이 단순히 1 더하기 1로서의 2가 아니라, 무한대의 가능성을 지닌다는 믿음 아래 새로운 어도비의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는 기존의 단품 판매 중심이던 비즈니스 구조를 탈피하고 각각의 고객에게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국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시장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IT와 모바일의 발전 속도, 활용도에 있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보급과 그에 대한 고객의 피드백 역시 신속하게 나타나고 있어 소프트웨어 기업에게는 중요한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도비시스템즈 역시 한국의 IT 업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지사를 설립하는 등 한국의 고객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모바일 분야에서 가장 앞선 시장이며, 경쟁력이 높은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모바일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는 어도비로서는 한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어도비가 인쇄업계에 공급하고 있는 솔루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쇄·출판업계에서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디자인 CS2는 다른 어도비 소프트웨어와의 통합 사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출시된 제품입니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스위트는 출판·인쇄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가 어도비 브릿지를 통해 유기적으로 통합 사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어도비 제품 간에 동일한 색깔과 형태가 보존되기 때문에 유저들이 파트너와 협업할 때 좀더 정확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산출해내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어도비 PDF 파일에 콘텐츠를 쉽게 삽입해 파트너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빠

른 검토와 피드백 수집이 가능합니다.

◎ 어도비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6000여명에 이른다고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발표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도비시스템즈는 고객만족을 기업의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도비시스템즈는 자사의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의 반응을 수집하여 제품 개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6000여명에 이르는 개발자들은 소프트웨어를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을 사용하며 고객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항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도비의 개발자들에게도 물론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디자인 CS2가 한글화된 메뉴와 도움말을 준비하고 한글 폰트를 위한 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것 역시 이러한 예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출판·인쇄와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출판·인쇄 분야는 그동안 어도비가 주력해왔던 중요 시장이며 앞으로도 그 중요도는 지속적으로 지켜질 것입니다. 현재 출판·인쇄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디자인 SW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수정해 나가는 한편 인디자인을 포함한 어도비의 통합 솔루션을 알려나가고, 구매 이후에도 고객분들의 반응을 수집해 제품 개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기업의 사회적인 활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도비사의 의미 있는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국어도비는 어도비 제품 사용자들은 물론 디자인 관련 종사자와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제품 교육과 기술 세미나를 통해 고객분들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제품 무료 다운 로드를 통해 쉽게 어도비의 제품과 기술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각 대학에 소프트웨어 등을 지속적으로 기증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디자인 공모전인 '어도비 디자인 공모전(ADAA : Adobe Design Achievement Award)'에 한국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정상 기자 sang@print.or.kr